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8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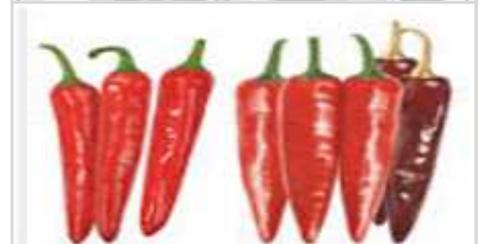
I 수출시장 넓힐 '멜론 수경재배기술' 본격 보급



II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III 대만 수출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검역 요건 변경 알림



농수산물 수출 Zoom In 83호 2021. 2. 26(금)

‘21.1.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7.8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23.2% 127.8백만불	  20.8% 494.9백만불	  9.7% 161.5백만불
+ 인삼류, 김치, 딸기 - 가금육류, 버섯류, 파프리카	+ 라면, 소스류, 파자류 - 연초류, 소주	+ 김, 굴, 오징어 - 참치, 넙치, 삼치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119.6백만불(24%)		 라면(107.8%), 인삼(133.3%)  버섯류(△45.1%), 마늘(△37.6%)
  중국 121.5백만불(23.2%)	춘절 연계 한국관 온라인 판촉	 인삼(136.5%), 소스류(127.1%)  유자(△9.3%), 맥주(△87.4%)
  ASEAN 168.4백만불(9.6%)	태국 Tesco Lotus 직접연계 딸기 판촉	 인삼(187.0%), 김치(147.1%)  가금육류(△39.3%), 연초류(△13.3%)
  EU 41.7백만불(7.8%)	체코(인삼류), 프랑스(가공식품) 유통매장 판촉	 라면(33.2%), 소스제품(49.4%)  음료(△22%), 버섯(△31%)
  홍콩 34.8백만불(4.5%)	홍콩 웰컴 연계 채소류 판촉	 김치(119.7%), 딸기(49.6%),  맥주(△43.3%), 참치(△19.8%)
 김치(142.7%), 라면(18.4%)  파프리카(△18.7%), 소주(△31.5%)	연말연초 에스마트 연계 종합판촉	  142.9백만불(△4.2%)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1.31



- 소스류

◇ 한국 치킨프랜차이즈점의 현지 진출로 치킨소스 납품 증가, 홍콩 트렌드 확산에 따른 간편 양념장 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 추세

29.7백만불(46.5%)

▶ 주요 수출국 : 미국(6,655천불, 42.4%), 중국(6,474, 127.1), 러시아(2,131, 35.4), 일본(2,003, 23.3), 베트남(1,245, △2.2)

- 김치

◇ 외식감소에 따른 가정식 수요증가, 반찬류 매출증가, 건강식품 수요확대로 상승세 유지

▶ 주요 수출국 : 일본(19,556천불, 119.7%), 미국(2,711, 120.1), 네덜란드(771, 200), 홍콩(714, 105.1), 영국(600, 85.8)



19.6백만불(119.7%)



“ 김 ”

◇ 식재료용 김밥김, 스낵김, 조미김의 인기에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등 수출 급등

45.7백만불(24.2%)

▶ 주요 수출국 : 중국(13,251천불, 114.5%), 일본(7,921, 57.5), 미국(7,881, 0.1), 태국(2,970, △51.2), 대만(2,535, 145.9)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수출시장 넓힐 '멜론 수경재배기술' 본격 보급

농촌진흥청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연구 개발한 멜론 수경재배기술을 지침서로 만들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주요 생산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멜론 수경재배는 품질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은 물론 기존 토양재배보다 병해충 걱정을 덜고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앞으로 멜론 재배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멜론 수경재배기술은 코코넛 열매껍질을 가공한 친환경 코이어 배지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가공해 만든 것으로, 사용 후 폐기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과수원이나 축사 등에서 재활용 가능)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배지 위에 배지당 모종을 33.3cm 간격으로 3포기를 심거나, 25cm 간격으로 4포기를 심는다. 배지당 3포기 심기 방식으로 양분·수분을 정밀하게 관리해 멜론을 재배한 결과, '히어로' '달고나' 등 6품종은 당도가 12Brix 이상 높았고, 무게도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 수경재배는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첫째,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이어짓기로 인한 토양 전염병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고, 만약 병해충이 발생해도 해당 배지만 교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수경재배는 초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년 사용 기준으로 토양재배 보다 1ha당 연간 약 175만원의 이익이 발생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3~4% 정도이며, 2020년 수출량은 1,122톤, 수출액은 369만 달러로. 주로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멜론 수경재배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수출에 적합한 품질의 멜론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식간격(배지당 3포기)



재식간격(배지당 4포기)



멜론 수경재배 매뉴얼



수경재배 메론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과장 김정빈, 이하 '검역본부')는 2021년 2월 4일 수출담당 식물검역관 53여명에 대한 수출검역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수출검역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제개정된 수출검역요건,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 동향 등을 공유하였고 수출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새롭게 바뀐 수출검역지원시스템 신규 운영체계 사용법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추후 검역본부는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상대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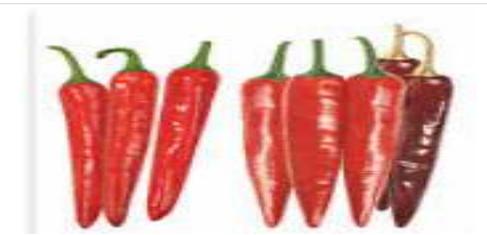


<토마토종자>



<고추종자>

대만 수출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검역요건 변경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과장 김정빈,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요건 변경에 대한 사항을 2월 16일 홍보하였다. 앞으로 대만으로 가지속 또는 고추속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대만측 우려 바이러스 4종 및 바이로이드 6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10종에 대한 무감염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 사항을 관련 수출업체 등에 신속하게 홍보하여 수출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